

복음통일

‘복음통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만물이 하나가 되는 교회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의 깨진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통일은 궁극적으로 세상의 모든 족속과 민족과 나라와 언어가 어린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나와 한 공동체가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북한 관련 정세 이야기

지난 4월 북한은 남한과 접하고 있는 휴전선 이북 2km인 북방한계선 등 수 개소에 다수의 병력을 투입하여 지뢰를 매설하고 대전차 방벽으로 보이는 구조물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동안 대전차 방벽은 북한의 남침을 방어하기 위해 남한이 주로 설치했던 구조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이 이를 설치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조치들은 남북한 간의 국경선의 분리를 강화하는 시도로 보입니다. 올해초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은 이미 남북한의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로 선언했고, 남한과의 관계에서 ‘동족’과 ‘통일’ 개념을 폐기하였습니다. 휴전선에 설치된 대전차 방벽 역시 남한과의 철저한 분절관계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보다 앞서 김정은은 지난 22년 9월 8일 동·서해를 연결하는 대운하 건설에 대한 계획을 최고인민회의의 시정연설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이 실행되면 남한은 반도에서 완전한 섬으로 바뀝니다. 오늘의 시점에서 이 방안을 재해석해 보면, 북한은 이미 그 당시부터 남북한의 관계 설정을 변화하고, 국경을 더욱 높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최근 북한은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2024년 6월 19일 북한을 방북한 푸틴과 김정은이 서명한 북러 간 조약 제4조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과 러시아 관계의 밀착을 보여주며, 남한과의 관계는 분절을 의미합니다. 북방인 러시아와의 밀착은 북한이 남한과는 완전히 결별하고 북방과 연대하는 힘을 강화하는 시도로 읽혀집니다.

이러한 한반도의 위기 상황 속에서 믿음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기도제목

복음통일을 위한 주간 기도자료. 16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한반도에 밝은 해빛과 따스한 햇살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온갖 우상과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에 대해 기도 하지 않고 있고, 바쁜 일상으로 기도에 게을리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평화의 중재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라와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성령의 능력은 없고, 부인하는 자들이 되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강도만난 자들을 보면서도 외면했고, 서로를 배타적으로 분열을 야기 시키는 모든 것들에 회개합니다.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나누인 것을 하나로 연결하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에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지하교인들, 지하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의 우상들이 제거되고 북한의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들에 세워지게 하셔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복음통일의 역사가 하루속히 일어나게 하소서.

통일선교기관의 특별기도 제목

<기도24·365본부>

1.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비전으로 24시간 365일 연속, 연쇄, 연합, 초점집중하여 기도하는 기도24·365는 한 사람의 순종으로 시작되는 것임을 믿으며, 선교완성을 소망하는 기도자들이 하루 한 시간 기도의 순종으로 나아오게 하소서.
2.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62:6-7)” 명하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초대 앞에, 한국을 넘어 열방의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되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소서.
3. 7/1-8/29에 진행되는 선교완성을 위한 52일 쉬지 않는 기도인 “느헤미야52일기도 프로젝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한 사람 ‘느헤미야’를 곳곳에 일으켜 주셔서, 열방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말씀 나눔

본문: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분명한 뜻이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데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본문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표현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로 연합하는 구속 공동체인 교회의 형성을 가리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인간은 타락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인류뿐만 아니라 창조된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잘못된 방향으로 치닫는 존재입니다(사 53장 6절). 그 결과 세상 각 족속은 타민족에게 ‘선한 이웃’(눅 10장 25절-37절)이 되지 못하고 자민족 중심주의와 우월주의에 빠진 채 타민족을 배타적으로 대하고 힘과 전쟁을 통해서 서로를 강탈했습니다. 유대인의 경우, 강한 선민의식으로 인해 이방인들이 야웨 하나님 신앙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는 중간의 막힌 담이 있었던 것입니다(엡 2장 14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죄를 구속하심으로써 모든 피조물이 다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한 방향으로 하나 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엡 4장 3절).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로 연합하는 교회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 됨을 이룬 구체적인 결실입니다. 또한 교회도 하나 됨을 힘써 지켜야 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남북한을 갈라놓고 남북한 사이에 놓인 담을 쌓으려고 노력할수록, 교회는 복음 통일을 위해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는 분(엡 2장 14절)이십니다. 한반도를 분열시키려는 북한의 시도에 대하여, 교회 내 그리스도인조차 보수와 진보로 나뉜 채 이념으로 갈등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세속적 이념이 교회를 갈라놓는다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엡 4장 3절)을 믿음의 사람들이 경홀히 여긴 결과입니다. 이는 만물을 통일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북한이 남한과 분절하고 러시아와 밀착하는 최근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설사 남북을 분리시키려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하나님은 변함 없이 북한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실 것입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자국민을 노동자나 유학생으로 더 보낼 것입니다. 러시아 내부에는 성령 충만한 거듭난 현지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습니다. 러시아에 간 북한 사람들은 러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 북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북한에 되돌아가게 된다면, 북한 땅은 영적으로는 이전보다 밝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북한을 밝히시는 일을 한시도 쉬신 순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향하신 구원의 역사를 변함없이 펼치실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더 많은 러시아인이 북한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북한과 북한 영혼들을 기도하게 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행할 것입니다.

신학적 관점

복음통일은 교회론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성경에 그 뿌리를 둡니다.¹⁾ 성경에서 ‘통일’이란 용어는 단 두 번 에베소서 1장 10절과 4장 6절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표현에서 ‘통일’은 어떤 의미일까요? ‘통일되게 하여 하심이라’ 문구는 헬라이어로는 ‘아나케팔라이오사스다이’(ἀνακεφαλαιώσασθαι)입니다. ‘통일’이란 용어는 아포카타스타시스(ἀποκαταστασις)에서 왔으며, 라틴어로는 ‘레카피톨라티오’(recapitulatio)이며, 영어로는 ‘리카피츨레이션’(recapitulation)입니다. 초대 교회의 교부 이레니우스(Irenaeus)는 이를 자신의 핵심 신학사상으로 발전시킵니다. 한철하 박사는 이 단어를 “총괄갱신”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²⁾ 영단어 ‘recapitulation’를 분리하여 해석해 보면, ‘re’는 ‘다시’, ‘cap’은 ‘머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통일이 만유의 새로운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유가 새로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가리킵니다.

첫 아담이 교만과 불순종으로 창조자를 떠났던 것과 달리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자를 사랑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만유가 이전과 다른 관계를 맺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³⁾ 결국 통일이라는 단어는 만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된 약속 그대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으로 나와 서게 될 것입니다(계 7:9). 언젠가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서 있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닌 ‘희망’이며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린 양 보좌 앞에 서 있는 종말론적인 자리에서 오늘 현재의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곳으로부터 오늘을 바라보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도 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오늘을 바라보면,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게 될 그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어린양 보좌로부터 오늘의 분단 현실을 바라보면 남북한이 언젠가 통일되는 그날도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오늘을 바라보면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북한에 들어가는 ‘틈’(a crack)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틈’을 통하여 생명과 부활의 ‘빛’(the light)이 북한에 비추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북한이 남한을 적대시하며 다른 국가로 취급하고, 남북한의 국경 분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해와 서해를 연결하는 대운하를 건설하며 대전자 방벽을 열심히 쌓을지라도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복음통일의 역사(엡 2장 14절)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결성하여 남한을 밀어내는 원심력을 강화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

1) 하충엽, “한국교회, 통일 개념의 확장”, 『기독교사상』, 2024.04, 통권 784호, 서울: 청광인쇄, 2024.
2) 한철하, 『고대기독교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52-57. 후스토 L. 곤잘레스/이형기, 차종순 역, 『기독교사상사(1)』, (서울:한국장로교출판사:2002), 202-204.
3) Terrance L. Tiessen, 『Irenaeus on the Salvation of Unevangelized』, (Metuchen, NJ: Scarecrow Press, 1990), 157. 김용국, “이레네우스의 총괄 갱신 신학,” 『역사신학논총』 제2집 (2000): 111, 재인용.

실 남북한의 복음통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